

인수위원장을 총리로 ... 정권인수 '급물살'

각료제정권 보장 위해 비서실장보다 먼저 발표

2월 10일까지 조각 이뤄져야 안정적 정권출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오후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 후보자를 발표하면서 새 정부 출범을 위한 정권인수 작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날 '박근혜 정부'의 첫 총리 후보자가 발표된 후 정부조직개편안 국회 처리, 국무위원 후보자 인선, 주요 국정과제 확정 등이 이어지며 박 당선인의 취임에 필요한 작업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더욱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무총리로 직행하면서 인수위 업무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첫 내각도 인수위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자연스럽게 박 당선인의 국정철학을 이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년 전 이명박 정부와 비교해 이번 대통령직인수위 발족은 열흘 가량 늦었지만 그동안 진행된 인수위 업무만 놓고 보면 일정표가 많이 늦어졌다고는 볼 수는 없다는 게 일반적 지적이다.

당시 정부조직개편안은 1월16일 발표됐지만 이번에는 1월15일로 오히려 하루 빨랐다. 초대 총리 발표일도 당시 1월28일이었음을 감안하면 이번이 4일이나 빠른 것이다.

총리 인선이 새 정부 출범에서 비중을 갖는 것은 조각(組閣)의 신호탄이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은 총리의 각료제정권 등 법적 권한을 보장하겠

다는 공약으로 책임총리제와 가까운 형태의 정부운영을 밝힌 만큼 총리가 빨리 결정돼야 정부부처 장관 인선을 본격화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와 달리 박 당선인이 청와대 비서실장보다 총리 인선을 먼저 발표한 것은 내각이 주축이 되는 국정운영 구상의 일단으로 해석된다.

조각 명단 발표 전에 인수위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우선 해야 한다. 새 정부의 정부조직이 확정돼야 해당 국무위원을 선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1월28일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2008년의 경우 정부조직법을 둘러싼 여야 간 협상이 지연되면서 조각 명단이 2월18일야야 발표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더 이상 일정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조직법이 처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각 명단을 발표한 것이다. 이는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지연으로 이어졌고 각료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아 새 정부가 출범하고도 국무회의에 최소 국무위원 수를 맞추기 위해 전 정권의 장관이 참석하는 파행으로 연결됐다.

이 같은 과거 상황을 감안해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조각 명단 발표의 최종시한으로 국회에서 새 총리의 임

김용준 총리후보 프로필

출생	1938년 12월 2일 (서울)
소속	소속법무법인 넥서스 고문 한국법률고문, 서울대 법대 법학 석사 주요 경력
1957년	고등고시 합격(9회)
1960년	최연소 판사로 법조계 입문
1984년	서울가정법원장
1988년	대법관
1994년	헌법재판소 소장(2대)
2004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2011년	법무법인 넥서스 고문(현)
2012년	새누리당 제18대 대통령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2012년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현)

명동의안이 처리된 후인 2월10일 전후로 보고 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1월20일 총리 후보자, 2월5일 조각 명단 발표를 예상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장관 후보자 임명동의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가 실시돼야 한다. 대통령 취임일인 2월25일에서 역산하면 늦어도 2월10일께 조각이 완료돼야 안정적 정권출범이 가능하다.

인수위는 이와는 별도로 박 당선인 이 대선 때 제시한 각종 공약을 국정과제로 확정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 당선인은 이르면 주말께 1차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5일 전후에는 국정 로드맵의 초안이 확정되고 15일 전후로 최종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오는 2월 출범할 박근혜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24일 서울시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밝게 웃으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말뉴스

'說'로 끝난 호남총리설 장관 입각은 몇명?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초대 국무총리에 지명함에 따라 그동안 정치권에서 설왕설래 했던 '호남 총리론'은 말 그대로 '살'로 막을 내렸다.

박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국민대통합'을 화두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호남총리'를 내심 기대했던 지역 민심은 아쉬움을 보이고 있다.

지역 민심 아쉬움 속 대통합·대타평 맞게 내각 구색 맞추기 아닌 소통 창구 확대 기대

이에 따라, 지역 민심은 조만간 구성될 박근혜 정부 조각에 호남 출신 인사들이 중용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역 민심은 박근혜 당선인이 실질적으로 광주·전남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자리에 지역 출신 인사를 중용하고 청와대 예도 지역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대폭 확대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내각 구성에서 호남 출신 인사들이 구색 맞추기 형식으로 기용된다면 박 당선인이 내세웠던 '국민대통합, 인사대타평'은 헛 구호에 그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은 실정이다. 현재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 후보군에 거론되는 호남 인재들이 그리 넓지 않기 때문이다.

일단 5년 만에 부활하는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에 광주 출신의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거론되고 있다. 전북 출신의 김종인 전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강봉균 전 재정부장관 등도 후보군이다. 법무부 장관에는 문성우 전 법무부차관이 거명되고

있다. 문화부 장관에는 박 당선인의 핵심인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거론되고 있다. 이 최고위원은 청와대 비서실장은 물론, 정무수석 및 홍보수석 후보자라도 이름이 나오고 있다.

박 당선인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선규 전 문화부 차관도 문화부 장관으로 중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새 정부의 외교안보 컨트롤타워를 하게 될 국가안보실장에는 김장수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간사가 유력 후보다. 김 간사는 국정원장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는 정승 전 농림수산식품부 차관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정 전 차관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 광주시 선대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검찰총장으로는 소병철 대구고검장과 주철현 대구 강력부장이 주목받고 있다. 소 고검장은 법무부 검찰과장, 정책기획단장, 기초실장,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등 수사 및 기획 분야의 핵심 보직을 두루 지낸 바 있다.

전남 출신의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도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박근혜 캠프 대변인이었던 안형환 전 의원도 청와대 입성이 점쳐지고 있다.

전남 출신의 이상현 의원도 입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박 당선자의 외곽지원조직인 30만명 규모의 '국민희망포럼'을 이끌어 대선 승리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다.

여기에 경제 1분과 인수위원인 박홍석 광주상공회의소 회장도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선대위 자문그룹인 문화가 있는 삶 추진단장을 역임한 전남 출신의 박명성 대표와 유수택 새누리당 광주시당 위원장도 박근혜 정부에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빛의만평

- 김중두

이럴지도 모르겠다

소아마비 달고 현재소장...5·18 특별법 위한 입장 내기도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소아마비 달고 헌법재판소장까지 오른 '인간 승리'의 주인공이자 장애인들에게는 '살아있는 신화'로 통한다.

김 지명자는 한화그룹의 전신인 조선총화약주식회사 대표를 지낸 김봉수씨의 5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러나 부친이 6·25 전쟁 와중에 납북되는 바람에 편모 슬하에서 성장했다. 친가와 외가가 모두 부유한 편이어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한다.

김 지명자의 오른쪽 무릎에는 보조장치가 달렸다. 세살 때 소아마비를 앓아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는 어머니 등에 업혀 초등

학교에 다닐 정도로 어려운 학창시절을 보냈다.

그는 특히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희망하던 경기고 진학이 좌절되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학업의 끈을 놓지 않고 서울고 2학년 재학 중 검정고시를 거쳐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다. 이어 대학 3학년 때인 만 19세에 고등고시(현 사법고시)에 수석합격, 1960년 최연소 판사로 법조계에 발을 내디뎠다.

김 지명자는 서울가정법원·광주고법·서울고법 등에서의 부장판사 생활과 서울가정법원장을 거쳐 지체장애인으로서는 최초로 1988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이후 김 지명자는 1994년 제2대 헌법재판소 소장에 임명돼 6년간 근무했다.

그는 1963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반대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구속된 송요찬 전 육참총장을 구속적부심에서 석방했으며 헌법재판소장 재임 중에는 과의 금지, 군 제대자 가산점제, 택지소유상한제, 동성동본 혼인금지, 단체장 임후보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결정을 내리는 등 국민 기본권 침해에 대한 각종 제함을 철폐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하지만, 5·18특별법에 대해서는 소수의견으로 위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취미는 수영으로 한강을 헤엄쳐 건너다닐 정도로 알려졌다. 부인 서재원씨는 이화여대 재학중 메이퀸 선발대회 학과 대표로 뽑히기도 했으며 슬하에 2남2녀를 두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http://www.hankooktea.co.kr

대한민국 차 부문 전통식품 명인지정

고품질 녹차

친환경 다원

작설차

한국제다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동 763-1 T.222-2902, 3973

제품문의 · 광주 차생원 : 062)224-2902 · 광주 신세계점 : 062)360-1232 · 광주 롯데점 : 062)221-1037 · 광주 현대점 : 062)510-7040 · 목포 차생원 : 061)281-1002 · 서울 차생원 : 02)730-2983 · 부산 차생원 : 051)256-7007-8

식품명인지정서

식품명인지정서

2009년 1월 2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한국제다는 10만평의 자가농장과 60년의 제다 각종 유기농 제다 대한민국 식품명인 선정 국제 녹차 품평에서 최우수상 수상 2009년 식품명인 1등상(금상) 수상 L.A 외 3개국 수출중 ISO 22000 인증 획득 전 세계로 나가는 아시아나 기내에 업선된 名인의 차만 남품 名節의 高貴한 선물은 名인이 만든 名茶를 권합니다.